

제18회 전북 청소년 동아리 경진 '댄스부문'

'너의 춤실력을 보여줘'

한국청소년동아리연맹 전주시연맹이 주최한 제18회 전북 청소년 동아리 경진대회, 댄스부문이 1일 오후 2시 전주 중앙문화광장에서 열렸다. 이날 경연은 전주매일신문사가 주관하고 전북도교육청이 후원했다.

우천에도 불구하고 열린 이날 경연에서 댄스팀들은 멋진 무대를 펼쳤다.

조봉성 전주매일 대표는 이날 대회사에서 "비가 오고 있어 다소 아쉬운 상태로 대회를 열게 되었다"며 "하지만 가지고 있는 재능을 맘껏 펼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참가하는 댄스팀은 총 5팀으로 전주예술평화고등학교 'X-Why(엑스-와이)'와 박숙현 에어로빅에 소속된 '틴에이지 걸스', 'Pnp 주니어 나인', 'D-Top(다-탑)', 'Pnp 주니어' 등이 있다.

이번 대회에서 전주예고 '엑스-와이'가 대상

5팀 참여... 전주예고 '엑스-와이' 대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엑스-와이는 "정말 급하다면 급하게 준비했는데, 이 대회에서 상을 받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전주예고를 비롯, 전북지역의 문화활동을 더욱 더 빛내보도록 노력하겠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국청소년동아리연맹 전주시연맹 김승곤 회장은 "비가 오고 있어 대회 진행이 잘 되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 많았다"며 "그래도 무난히 행사를 잘 마무리돼 기쁘다"고 말했다.

끝으로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게 도와주신 많은 분들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 하에 진행됐으며, 그 뒤로 제18회 전북 청소년 동아리 경진대회 '그룹사운드 부문'이 이어서 열렸다. <관련기사 10면>

/김재훈 기자



2인조 댄스팀 '다-탑'



방탄소년단 '다이너마이트'에 맞춰 열띤 무대를 선보이고 있는 전주예고등학교 '엑스-와이'



제18회 청소년 동아리 경진대회, 댄스부문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한 전주예고 '엑스-와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는 '틴에이지 걸스'



공연 시작부터 열띤 무대를 선사하는 'pnp 주니어 나인'



공연 시작부터 열띤 무대를 선사하는 'pnp 주니어 나인'



제3회 고창농촌영화제가 지난달 30일 개막한 가운데 개막작인 담보가 상영되고 있다

지친 일상 치유하러 고창에서 '#영화 #보리'

농촌영화제 개막... 코로나19 여파로 '드라이브 시네마' 방식으로 개막작으로 강대규 감독 '담보' 선정 감 감독 참석 관객과 소통 진행

지친 일상을 치유해줄 제3회 고창농촌영화제가 지난달 30일 오후 7시 고창군 농산물유통센터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다.

올해 고창농촌영화제는 '고창에서 #영화 #보리'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로 '드라이브 시네마 방식'으로 영화제를 진행해 관심을 끌었다. 식전공연으로 테너 이성진과 소프라노 고은

영이 아름다운 선율로 영화 OST음악을 주제로 10월의 마지막 밤을 수 놓았다.

그린카펫 입장식을 통해 각계각층의 농촌관련 대표자들과 영화계 인사들이 농촌영화제만의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이번 제3회 고창농촌영화제 개막작으로는 강대규 감독의 '담보'가 선정됐다. 강대규 감독이 참석해 영화소개와 관객과의 소통을 진행해 보다 뜻깊은 자리로 기억됐다.

진기영(NH농협 고창군지부장) 고창농촌영화제 조직위원장은 "마음이 힘들수록 좋은사람들과 영화를 감상하는 일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올해 3회째를 맞은 고창농촌영화제가 전국 최초 농촌을 주제로 한 영화제인 만큼 그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감을 전했다.

제3회 고창농촌영화제는 인터넷 사전신청을 통해 드라이브 시네마 참여자와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했다. 개막식 등 주요 프로그램을 유튜브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 스트리밍을 동시에 진행해 화제를 모았다.

/고창=김영식 기자

tvN 드라마 '지리산' 남원 오픈세트서 첫 촬영

남원시가 제작 지원하며 남원의 명소 곳곳에서 촬영되고 있는 드라마 '지리산'이 지난달 29일 남원 오픈세트장에서 첫 촬영을 시작했다.

이에 남원시와 제작사 (주)에이스토리, 스튜디오오래곤, 바람픽처스는 이날 드라마 '지리산'의 성공과 무사고를 기원하는 행사도 진행했다.

이날 오픈세트장에서의 첫 촬영에는 남원시 관계자들을 비롯해 권경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이은복 감독, 이상백 (주)에이스토리 대표,

김영규 스튜디오오래곤 대표, 박호식 바람픽처스 대표 등이 참석했다.

2021년 tvN에서 방영될 '지리산'은 국립공원 1호인 광활한 지리산의 비경을 배경으로 산을 오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낸 미스터리물이며, 남원시는 이번 드라마 제작지원과 관련해 지난 9월 23일 제작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지현과 주지훈이 주연이며, 전 세계가 주목하는 김덕과 웰메이드 장르물 시그널을 탄



생시킨 김은희 작가와 미스터 션사인, 도깨비, 태양의 후예 등의 이은복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2021년 최고 기대작으로 손꼽히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구시민 21명의 마음 담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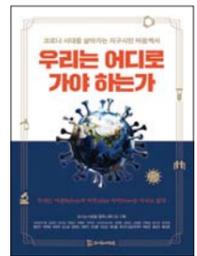
마음백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하는가' 간행
원광대 박맹수 총장 등이 집필진으로 참여

원광대학교 박맹수 총장을 비롯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지구시민 21명의 마음을 담아낸 마음백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하는가(도서출판 모시는사람들)'가 간행됐다.

이 책은 지난 4월 간행된 '세계는 왜 한국에 집중하는가'에 이은 후속편으로 전원이 코로나의 충격과 K-방역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책은 코로나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메시지를 성찰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전망하고 있다.

집필진의 세대와 분야가 조화를 이룬 이 책의 특징은 전체 집필진 절반에 해당하는 11명이 20~30대 청년들로 구성된 지구세대들이 각자의 관점에서 현실과 미래에 대한 생각을 담담하게 서술하고있으며, 전공 분야도 경영, 철학, 종교와 같이 현실과 이상이 아우르고, 국적 또한 다양한 인도, 중국, 일본의 시각에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을 전해주고 있다.

특히 원광대 박맹수 총장이 코로나 발발 초기에 원광대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코로나에 대응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었는지를 감동적으로 그려내고, 원광대 원불교사상연구원 허남



진·이주연·조성환 연구원이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학문으로서 '지구인문학'을 제안하고 있는 점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원불교 총부에서 근무하는 인도 출신 파드마 납갈 아지타(한국명 원현정) 교무의 '코로나19는 인도에 무엇을 말해주었나'에서는 인도의 코로나 대응 상황을 한국의 상황과 비교하면서 상세하게 전달해 흥미를 끌고 있다.

한편, 이 책을 기획한 '철학스튜디오'는 지구화 시대의 한국인문학을 디자인하는 철학 작업실로 개벽학을 출판하는 모시는사람들과 인문학을 연구하는 소장 학자들이 모여 자생적 한국학을 '술이창작(述而創作)' 하자는 목표 아래 21세기가 요구하는 지구인문학을 기획하고 있어 앞으로도 참신한 작품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익산=장영희 기자

주민에게 활력을... 남원교육문화회관 문화행사 '다채'

남원교육문화회관에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일상생활 속에서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들이 따뜻한 치유와 건강한 활력을 나눌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책으로 내 꿈 나눔' 프로그램에서는 학생들이 맘껏 꿈꿀 수 있는 책놀이, 독서문화공연 등을 운영하며, 심례문화예술촌을 방문해 아트관, 목공소 탐방과 스크랩북 만들기 체험을 했다.

우리 마을 환경을 새롭게 조명해 보고 친환경적인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한 '찾아가는 환경교실'에서는 관내 9개 초등학교와 함께 '환경오염 교육과 생태체험활동, 재활용품 소품 만들기' 등을 진행했다.

또한 '책 읽어주는 음악회'를 운영해 지역주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특히 역사와 철학을 주제로 '한국 현대사: 세계의 시선, 철학의 시선' 인문학 강연을 총 6회에 걸쳐 진행했다. 음악회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책과 음악으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좋은 경험였고, 아이와 함께 할 수 있어 더욱 뜻깊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남원교육문화회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현재의 위기 상황이 학생들에게는 모르는 존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강인함을 기르고, 지역주민들에게는 잠시 멈춰 자신의 내면을 채울 수 있는 소중한 쉼의 시간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잠은성 기자